

궁금했어요



황당한 질문입니다만, 조상들이 믿었던 기복적인 천지신명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같은 하느님입니까?

“인간은 모두 예배자”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조상님들의 신앙심은 참으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고개마다 성황당 깃발을 달고 구비를 돌 때마다 돌멩이 하나를 얹으며 하늘님께 소원을 빌었으니까요. 찬 새벽 정화수를 뜬 정성도, 백일을 꼬아 바친 치성에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뿐 아니라, 일마다 때마다 천지신명께 감사했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내 탓’이라며 원망을 삭여 내렸으니, 하늘님의 감동이 따랐으리라 싶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에도 하느님께 서는 존재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천지신명이 그리스도 교회에 근거한 하느님은 아닐지라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향한 경배였다면 한 하느님이십니다. 이에 유명한 신학자 칼 라너는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에 하느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도 선한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하느님이 알려지지 않았던 때에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선하게 살은 덕으로 구원될 것을 밝힌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의 가르침이 전해진 ‘빛의 때’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야 할 사명을 주신 까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기복적인 요소를 배제해야 할 절실한 이유입니다.

『소곤 소곤 얼추 알겠습니다, p84, 장재봉 신부 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15 | 1 | 제63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 반성과 선견지명 |

(집회서 18,19-29)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26장 “이끌어 주소서”
1,2절까지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저희 마음을
열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집회서 18장 19절부터 29절
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8, 19 말하기 전에 배우고 앎기 전에 몸조심하여라.
20 심판이 닥치기 전에 너 자신을 성찰하여라.
그러면 썸 바칠 때에 용서를 받으리라.
21 병들기 전에 너 자신을 낮추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회개의 태도를 보여라.
22 서원을 제때에 채우기를 망설이지 말고
죽기까지 그 이행을 미루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 23 서원을 하기 전에 자신을 준비시켜
주님을 떠보는 인간처럼 되지 마라.
24 끝 날에 닥칠 그분의 분노를,
그분께서 얼굴을 돌리며 징벌하실 때를 생각하여라.
25 배부를 때에는 굶주릴 때를,
부유한 시절에는 가난과 궁핍을 생각하여라.
26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은 흐르고
주님 앞에서 만물은 금세 지나간다.
27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용의주도하다.
죄악의 날들에도 그는 악행을 조심하리라.
28 지각 있는 이는 누구나 지혜를 알고
그것을 찾은 이에게 찬사를 보낸다.
29 지각 있게 말하는 이들은 스스로 지혜로워지고
적절한 격언들을 쏟아 놓는다.
유일하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은 죽은 마음으로
죽은 자에게 매달리는 것보다 낫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하루의 삶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일의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때 오는
생활의 변화를 나누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 주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피정이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성찰 「매일 15분의 양심성찰은 하느님과 이웃과 나 자신에 대해 보다 깊이 알 수 있게 해 준다. 양심성찰은 나의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나의 삶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의식하여 나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다.」

감사 하느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조명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에서 하느님과 이웃과 나를 거짓 없이 볼 수 있도록, 하느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청한다.

성찰 나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으며 나는 어떻게 응답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본다.

자비 하느님께서 나의 삶에 필요한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주시기를 청한다.

변화 내가 해왔던 방식을 하느님의 방식으로 바꾸라는 초대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를 위한 결심을 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오시기를 청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면서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
(천주교 예수회 후원회, 양심성찰카드)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매일 매일 우리의 삶을 하느님 앞에서 비춰보는 양심성찰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분의 이끄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26장 “이끌어 주소서”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늘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며!

-4구역 5반 조분희 아네스-

진해 경화 본당은 올해 2015년이면 50년의 역사를 지니며 저희 부모님들의 신앙이 깃든 아담하고 유서 깊은 본당입니다. 아주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박하고 정겨운 멋들이 곳곳에 서려 있어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본당입니다. 봄이면 진해 군항제를 통하여 아름다운 벚꽃을 볼 수 있고, 바닷바람과 장복산 솔바람이 본당 마당에서 어우러져 춤추며 놀다 가기도 합니다.

저희 본당의 소공동체는 7개 구역 2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미흡하지만 4구역 5반 푸르시오 소공동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소공동체는 소공동체장의 열정과 헌신, 아름다운 지도력이 소공동체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전입세대 방문 및 냉담 세대 회두 권면과 예비자 교리 봉사를 통한 새 영세자 탄생 등, 저희 4구역 5반 가족 만들기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오늘의 소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저녁에 10여 명이 모임을 가지고 마침 성가가 끝난 후에는 맛난 음식을 곁들여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하며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반원 중에 본당의 성가대 지휘자가 있어 모임의 시작 성가부터 활기차게 모두가 마음을 열고 말씀 나누기에 임할 수 있는 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복음 말씀과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부분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각자가 느낀 점과 삶의 얘기, 가정과 직장에서 일어난 문제점 및 소통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다 보면 하느님의 말씀으로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을 통해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이 늘 저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저희 모두가 간직하고 실천하여야 할 생명의 말씀은, 저희 삶 속에서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생명의 말씀을 ‘겸손’으로 정하여 열심히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겸손인데 다음 달에는 각자가 ‘겸손’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았는지 나눔을 해 볼 계획입니다.

2014년에는 교황님께서 한국을 다녀가신 큰 경사가 있었고, 저희에겐 기쁨과 행복과 희망 등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교황님과 관련한 많은 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뒀 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라는 책은 신앙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4구역 5반에서는 그 책을 읽고, 앞장선 실천을 통하여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정녕 주님을 경외함은 지혜요 교훈이며, 믿음과 온유야 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집회 1,27)

교우 여러분, 사랑합니다!



경화 본당 4구역 5반 반원들